

‘더 기아EV5’ 시승기

“넉넉한 실내 공간은 기본이고 부드러운 가속과 승차감에 패밀리 전기차로 안성맞춤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왕복
용장한 외장과 넉넉한 실내 공간에 상품성 충분
1열 시트 후면 테이블 등 다양한 편의공간 제공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패밀리 준중형 전기 SUV ‘더 기아 EV5’가 최근 출시한 가운데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정문에서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일원 왕복 60km를 시승했다. 사진은 시승 차량.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제공〉

부드러운 가속·승차감 만족…패밀리 전기 SUV ‘안성맞춤’

올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대표 전기차 모델인 ‘더 기아 EV5’를 시승하고 요약한 소감이다.

시승 코스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정문에서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일원으로 거리는 왕복 60km다. 시승시간은 교통상황을 감안해 편도 30분, 왕복 60분 가량 소요됐다.

출발에 앞서 EV5의 외관을 본 느낌은 웅장함이 었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지트 유나이티드 (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

를 기반으로 박시(Boxy)하면서도 역동적인 실루엣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외부 디자인이 비슷한 EV3와 EV9 사이 크기로 가족 중심의 실용성을 갖춘 준중형 전기차 SUV의 표본모델이었다.

내부에 들어서자 깔끔한 디자인과 전기차 특유의 넉넉한 실내 공간이 눈길을 끌었다. 실제 EV5는 전장 4,610mm, 전폭 1,875mm, 전고 1,675mm, 축간거리 2,750mm로 기존 준중형 전기차 대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췄다.

시동을 걸자 전기차의 장점인 가속력과 정숙성이 돋보였다. 체감적으로 파워풀한 운전이 용이했으며, SUV답게 시야확보도 좋은 편이었다.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돼 방음 수준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1열 시트 후면 테이블 등 다양한 수납 공간과 편의 사양이 제공된 점도 타 차종과 차별화된 점이다.

이번 시승한 EV5 GT-라인(line)은 ▲사선의

전면부 하단 그릴 패턴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 ▲3스포크 스티어링 휠 ▲GT-라인 로고가 새겨진 전용 헤드레스트 ▲블랙 헤드라잉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했다.

EV5의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아이스버그 그린 ▲프로스트 블루 ▲다크 오션 블루 ▲아이보리 실버 ▲마그마 레드 ▲그래비티 그레이 ▲퓨전 블랙 8종의 유광 컬러에 ▲아이스버그 매트 그린 1종의 무광 컬러를 더해 총 9가지로 운영된다.

EV5는 안전성 분야에서 유독 심혈을 기울였다. 그 예로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된 가속 제

한 보조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차량이 시속 8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오랫동안 밟아 가속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클러스터 팝업 메시지를 통해 경고를 하고 2차로 음성 메시지 경고를 하며 가속을 제한한다.

EV5의 판매 가격은 롱레인지 ▲에어 4천855만원 ▲어스 5천230만원 ▲GT 라인 5천340만원이다. 정부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기본 트림인 에어를 기준으로 4천만원 초반부터 EV5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채만 기자

광주은행, 현대건설과 ‘녹색 동맹’

‘RE100 솔라-론’ 금리 인하 혜택 제공

광주은행이 현대건설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천 가속화를 위한 ‘녹색 동맹’을 맺었다. 이를 통해 탈탄소 및 기후 대응에 앞장서며 지역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현대건설과 ‘ESG경영 및 RE100 실천 등 온실가스 감축 선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현대건설 본사에서 정일선 광주은행 부행장과 이동훈 현대건설 상무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직접PPA) 시장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다. 광주은행은 현대건설과 직접PPA를 체결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이 지난 2025년 4월 출시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대출 상품인 ‘RE100 SOLAR-LOAN’의 혜택이 확대된다.

‘RE100 SOLAR-LOAN’은 광주은행이 정하

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와 전력 공급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 시설 및 부지 담보 제공과 전력 판매대금 채권 양도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 기간은 전력 공급계약 범위 내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현대건설과 직접PPA를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RE100 SOLAR-LOAN’ 이용 시, 신용등급(소매 ASS 6등급, 기업신용 BB+이상) 및 담보비율(최소 30% 이상)에 따라 대출 금리가 기존 최저 연 3.47%-최고 연 10.63%에서 최저 연 3.47%-최고 연 4.30%로, 최고금리가 대폭 인하된다. (지난 10월29일 기준 변동금리)

‘RE100 SOLAR-LOAN’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 박문수 부장은 “이번 현대건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녹색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호남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최갑렬 12대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선출

“지역주택건설사 지원 등 초점”

제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에 파라뷰플러스 최갑렬(사진)회장이 선출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파라뷰플러스 최갑렬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갑렬 신임 회장은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건설업에 입문한 이후 지역건설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이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회장등 주요 직책을 거치는 동안 협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역사회에서는 BBS광주불교방송사장,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삼일파라뷰문화재단 이사장, 파라뷰미술관 이사장과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 신임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고 전국 어

는 지역보다 주택사업하기 좋은 광주·전남을 만들겠다는 신념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대에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건설사들이 앞으로도 전국의 민간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품질개선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사회공헌사업 지원 등 회원사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1천여 회원사 결속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 주택 주택건설시장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새로운 대안사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해외 주택사업 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취임식은 오는 11월14일 오후 5시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임채만 기자